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체프리카

경제의 눈

문화인사

당신의 '뻔뻔'지수는?



최윤희

내가 감의를 가져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순수+순진하다는 것이다. 감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면 이제까지 나를 쳐다보고 있던 눈동자들이 쓰웃~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만 짓을 하고 있다. 부끄럽기 때문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때문이다.

나 역시 부끄러움의 지존이었다. 내성적, 소극적, 단 한 사람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달라졌다. 그냥 들어간다. 죄만 안 지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뻔뻔함수록 인생이 즐겁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면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 나는 주장한다. 뻔뻔할수록 인생이 즐겁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면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

그러나 지금은 완전 달라졌다. 그냥 들어간다. 죄만 안 지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뻔뻔함수록 인생이 즐겁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면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그러나 지금은 완전 달라졌다. 그냥 들어간다. 죄만 안 지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내가 아까는 후배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다 30대에서부터 40대의 싱글들인데 한달에 두 번 씩 모인다. 그 모임의 타이틀이 췌어준다.

'티나 시스터즈!' 각자 이름도 지었다. 총티나, 볼티나, 섀티나, 빈티나, 뽕티나, 막티나 등등

그들은 만나면 이름부터 부른다. -야, 총티나 왔니? 너 오늘도 열라절라 총티나는구나!

-오~ 볼티나, 그동안 얼마나 볼티를 풍기며 살았지?

-우~ 우리 빈티나, 역시 오늘도 팔각 불쌍한 빈티가 나는구나. 내가 밥 사줄게 기대해.

개봉박두!

-야~ 뽕티나, 너는 뽕 좀 C급으로 바꾸고 다녀. 뽕도 찌그러졌는지 납작해서 어디 되겠니?

빈대떡 나바론의 건포도야.

-섀티나, 너는 허구한날 싸구려만 입고 다니니 스카프 되겠어? 렉서리하게 좀 하고 다녀!

-야, 막티나~ 너는 마구마구 막티내지 말고 조신하게 좀 살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까르르 뒤집어진다. 이 뻔뻔이스트를,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까발리면서 사는 거지. 역시 멋져!멋져!

그들이 멋진 이유는 자신의 약점에 '방점'을 찍으면서 오히려 강조하고 산다는 것이다. 뻔뻔의 최고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부르짖는다고 한다. 오~ 브라보 뻔뻔, 오~ 브라보 라이프! 뻔뻔

씨들의 18번, 애창곡은 돈 워리 비 해피!

말하자면 그들은 '돈비족'이다. '돈이 인생의 제 1이라는 사람들을 비롯한다.

카르페 디엠...오늘을 즐기세요. 왜 내일을 걱정하나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일은 그림 속의 딱일 뿐이다. 오늘을 즐기기에 대한 인생인생인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철저히 충실하다. -에스터 데이 이즈 히스토리.

-투데이 이즈 엔조이,

-투모로우 이즈 미스터리!

그래서 오늘은 멋지게 즐기자는 것!

'돈비족'들의 특징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자신만만하다. 뻔뻔하다.

왜? 자기인생을 스스로 핸들링하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확실한 판단, 확실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들은 오늘에 최선을 다한다. 오늘을 100% 산다. 그래서 그들 눈에서는 항상 '뻔'이 반짝인다. <행복 디자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10·4공동선언' 남북 평화변영 전기돼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10·4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분단 이후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비롯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점에서 주목된다.

10개 항에 걸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6·15 공동선언'이 남북의 지향점에 초점을 맞춘 추상적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동선언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종전선언 추진, 총리 및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구체적이다.

무엇보다 주시되는 것은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다. 두 정상은 현재의 종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안보구도에도 각각변동이 예상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철수

10년 전만 해도 70세면 장수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70세는 기본인 듯하다. 따라서 전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최근에는 삶의 질을 심각히 위협하는 질병이 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면 대개 보조기를 차거나, 3개월 정도의 안정 치료가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압박 골절된 척추에 골 시멘트를 주입해 뼈를 빨리 굳게 하는 척추성형술이 개발되어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해졌다.

골다공증 환자, 척추 압박 골절 조심해야

등 아주 심한 외상 후에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외상에도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엉덩방아를 찧거나, 심지어는 가벼운 기침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서 외상을 당한 병력이 없이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의 압박 골절이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추락 사고나 교통사고

기고



이진

전남지역 노인들의 목욕이 한결 수월해졌다. 전라남도도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면 단위에 지난해부터 28개소의 공중목욕탕을 새로 지었고, 2010년까지 총 63개소를 추가로 더 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없는 지역이 많다. 만성질환자와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목욕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훨씬 더 필요함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목욕을 포함한 운동과 검진진료 등을 묶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55개면 49개소에서 보건소와 호남대·동신대·순천침양대 등의 산학협력단,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 목욕탕 사업' 반기는 노인들

해 준다. 목욕 중에 발생하는 수압은 호흡을 돕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단련해 준다. 또 몸을 물에 담그면 뜨는 힘 즉, 부력은 신체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아예 없는 지역이 많다. 만성질환자와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목욕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훨씬 더 필요함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목욕을 포함한 운동과 검진진료 등을 묶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55개면 49개소에서 보건소와 호남대·동신대·순천침양대 등의 산학협력단,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의 참여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노인은 "도시의 손자를 불러 갈 때도 프로그램 날짜

자녀 잘못 지적하고 혼 내는 게 '자식 사랑'이다

얼마 전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하던 중학생을 직접 쫓아와 잡는 현장을 목격했다. 마침 그 경찰관이 속한 지구대에 불이익이 있어 뒤따라 갔는데 그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한 뒤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 부모를 지구대 오도로 조치하고 있었다.

런 것을 할만한 아이가 아니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장면은 봤지만 거드는 것 같아 목욕히 지켜보고 있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지구 온난화 심각... 가까운 거리 걸거나 자전거 이용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등이 있으며, 이중 지구 온난화의 2/3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이다.

고 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유럽에서 관광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옆에 아홉은 영국이나 프랑스를 꼽을 것이다. 화려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매년 엄청난 관광수입을 거둬 들이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한 공간으로 '디자인해' 일약 세계의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스페인을 찾는 방문객의 80%가 구겐하임 빌바오를 찾은 정도다.

디자인 비엔날레

유럽에서 관광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옆에 아홉은 영국이나 프랑스를 꼽을 것이다. 화려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매년 엄청난 관광수입을 거둬 들이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세계 문화도시로 거듭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21세기는 디자인 시대다. 이제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키워드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세계 각국의 유수기업들이

이 독보적인 디자인을 위해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자인 비엔날레는 총성없는 디자인 전쟁의 최전선이자 문화수도도 향한 긴 여정의 출발지이다. 이는 우리가 디자인 비엔날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1업건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편집부 2200-616	여론체재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7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